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일시 | 23.10.05. (목) 14:00~16:15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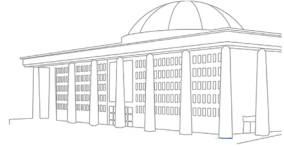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구분	일정	주제	주체
제1부 개회	14:00~14:20	개회 및 국민의례	이진웅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개회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축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정훈 의원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시대전환 대표)		
14:20~14:25	사진촬영 및 장내정리	참석자	
제2부	발제 14:25~14:45	<발제>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 갈등과 협력	김선빈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토론 14:45~16:15	<좌장> • 백범흠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토론> • 김민서 (Oval Korea 부회장) • 신유리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 기자) • 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 이육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실장) •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좌장 및 토론자
	16:15	폐회	

※ 사정에 따라 참석자 변동 가능성 있음

CONTENTS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개회사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1
----------------------	---

축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5
조정훈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시대전환 대표)	7

발제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갈등과 협력	9
김선빈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토론

좌장 백범흠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토론 1 김민서 (Oval Korea 부회장)	25
토론 2 신유리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27
토론 3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 기자)	29
토론 4 이승원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31
토론 5 이욱연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33
토론 6 이윤식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실장)	35
토론 7 정미애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37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개회사



김현곤

• 국회미래연구원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입니다.

오늘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을 개최합니다. 첫 번째 포럼의 주제는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입니다. 축사를 맡아주신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님, 조정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고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청년미래포럼>은 청년이 목도한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 국회의원, 주요 정당 등 국회 구성원과 각계 전문가, 청년세대 당사자가 함께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 소속 청년미래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행사를 직접 기획한 만큼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생생히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 세대는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입니다. 모두가 청년 이슈에 관심을 두고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올해 들어 3기 청년미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제6회 국회미래포럼>에서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기획한 이번 포럼은 청년들이 주목하는 문제를 진단하고, 마찬가지로 청년 세대의 관점을 통해 방향성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에는 세계 인구의 20퍼센트가, 세계 경제규모의 25퍼센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국의 협력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은 과거사 문제로부터 시작한 갈등으로 인해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중일 현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청년미래위원이 직접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시간에는 좌장을 맡아주신 백범흠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님을 비롯하여 정당, 학계, 언론, 청년 NGO 등 각계의 전문가분들께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논의된 토론내용이 국회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미래연구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한중일 관계를 논의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10월 5일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축사



이광재

• 국회사무총장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축사



조정훈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의원, 시대전환 대표

발제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갈등과 협력



김선빈

• 現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 세대의 한중일 인식 : 갈등과 협력

청년이 제시하는 국회의 역할과 과제

2023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목차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01. 서론
02. 청년이 바라보는 한중일
03. 청년이 제시하는 한중일
04. 결론

01

서론

1. 각국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갈등
2. 갈등과 화합 부재의 원인

각국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갈등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의 삶, 맞닥뜨린 갈등



“

20대는 한국 대학 내 중국 유학생의 급증으로 인하여 이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게 된 상황이 부정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국내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록금 동결, 국가 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중국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왔고, 그 결과 2019년 기준 중국 유학생 수가 7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학점 체계, 조별과제 수행의 어려움 등이 야기한 학점 공정성이나 역차별 논란,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현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문화 차이 등 다양한 갈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 상황이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출처: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이분영, 2023)

각국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갈등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의 삶, 맞닥뜨린 갈등

- 재한일본인 유학생들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의 반일감정으로 인한 불쾌감’ 응답 비율: 약 20% (5/26)

- 역사, 영토 갈등에 대한 공격
- 온라인상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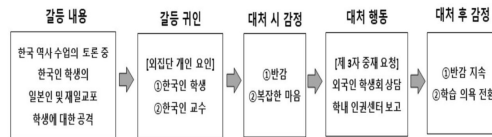


그림 11. 한·일 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 대처 과정(의 사례)

출처: '재한 일본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갈등과 대처에 관한 사례 연구' (박애스더, 2021)

갈등과 화합 부재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갈등과 화합 부재의 원인

- 상호이해의 부재와 해당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일반화
=> 개인의 문제를 중국, 일본 국민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오류.
- 건전한 의견교류와 토론의 기회 부족
=> 한중일 갈등 이슈에 대한 언론과 정부에서의 부정적 선전이 영향 미침.

02

청년이 바라보는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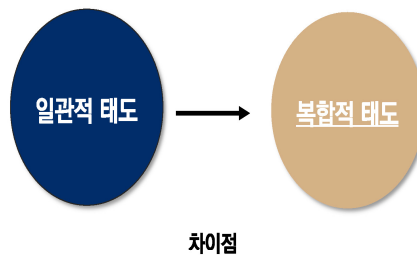
1. 청년세대에 대하여
2.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일본, 중국
3. 소결

청년세대에 대하여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세대의 중요성

- 청년세대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아픔의 역사와 갈등의 굴레를 넘어 한중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가 갖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에 대하여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청년세대의 차별점

“

과거 갈등이 존재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감과 혐오로 일관하던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역사적·정치적 관점으로부터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공유한다.
 사안에 따라 '친근감'과 '중요도'를 분리하여 인식하는데, 갈등 의제와는 별개로 일본과 문화 교류를 이어가거나 개인적 호감도에 치우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지향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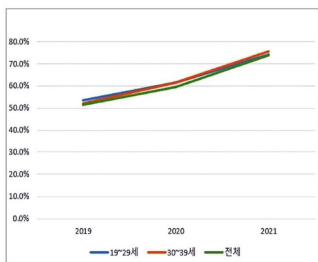
출처: '한국 청년세대의 중국 및 일본 인식' (이문영, 2023)

청년세대에 대하여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상호 인식 조사 결과

<그림 4> <중국 비호감도 변화>



<그림 10> "현재 한일관계는 어떻습니까?" 응답 비율



- 전 세대적 중국의 비호감도 상승
- 해소 가능한 중국의 비호감
- 20대의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승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일본'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일관계 개선-관광

- 전국경제인연합회 설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3%(20대 43.3%, 30대 60.2%)가 일본 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일본 방문 목적으로는 관광·여행이 96.4%(20대 96.0%, 30대 96.8%)로 가장 높았다.
- 응답자 중 51.3%(20대 49.9%, 30대 52.9%)는 일본 방문 등 교류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2 '한·일 국민 상호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양 국 모두 77%의 호감도를 보였다.

11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일본'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일관계 개선-가치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청년세대는 과거(45.6%)보다는 미래(54.4%)에 방점을 둔다.
-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미래를 추구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장기적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48.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청년세대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대해 강경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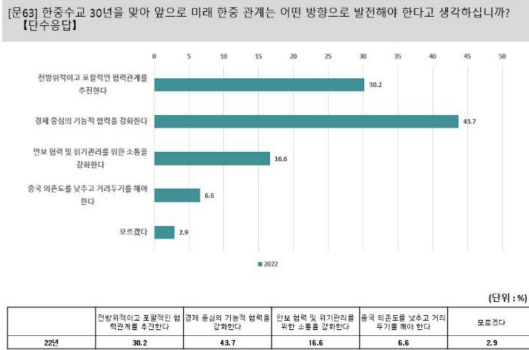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중국'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관계 개선-국가적 중요도

1) 협력의 대상

[그림 14] 미래 한중 관계의 발전 방향



- 미래 한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6.6%)'는 의견보다 '**경제 중심의 기능적 협력을 강화(43.7%)**'하고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추진(30.2%)**'해야 한다는 등 여전히 **중국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opyright(c) 2022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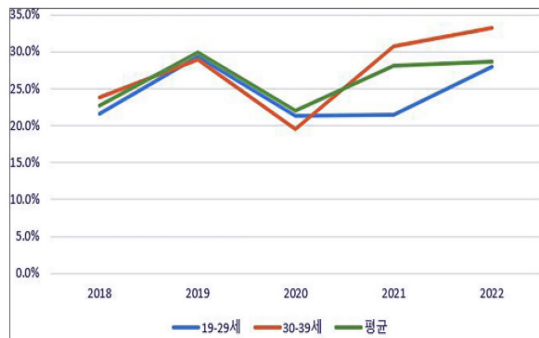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중국'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관계 개선-국가적 중요도

2) 한반도 평화의 변수

<그림 7> "중국 부상=한반도 평화에 도움" 선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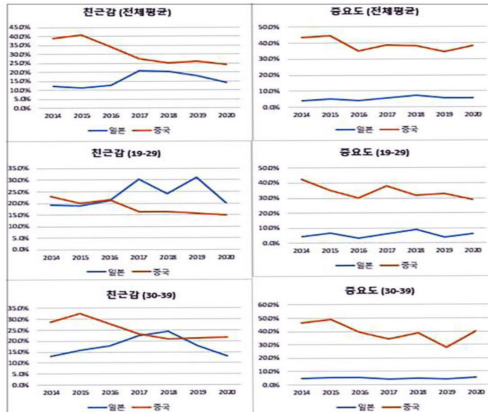


- 청년세대는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중요도'를 달리 인식한다.
즉, 중국에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도, 한반도 평화 및 통일, 국익과 관련하여 **중국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중관계 개선-국가적 중요도

2) 한반도 평화의 변수

〈그림 5〉 중국/일본의 친근감/중요도 세대별 비교



- 개인적 감정과는 별개로, 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중국에 비해 일본을 더 친근감 있게 느끼지만, 중요도 면에서는 중국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일방의 측면으로 정쟁화하여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소결

- 친근감과 중요도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경향은 한중과 한일 관계를 넘어 향후 한중 일 삼국의 발전적인 미래에 전략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관광, 예술 분야와 같이 양국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이끌어낸 요인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또한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에 얽매인 이분법적 태도를 지양하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실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03

청년이 제시하는 한중일

1. 청년 참여 정책
2. 청년 요청 정책

1. 청년 참여형 정책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지금의 청년세대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외교관계를 반영하기 위함

1) 외교통상위 내 청년위원회 설립

- 입법부 차원에서 외교 및 정치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모아 국회 상임위,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외교부와의 변별성)

2) 외교통상위 의회청소년교류 사업을 한중일 부문으로 확대

- 한미의회청소년교류 사업의 경우와 같이 외통위 국회의원 추천 선발이 아닌 공개선발 제도로 개정함.

2. 청년 요구형 정책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년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초당적 외교 및 정당 차원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 요청

1) 초당적 외교 협력을 통한 정책 보완: 한중일 의원연맹 제도화

- 한중일 의원연맹을 지속 발전시켜 한중일 간 정기적 소통 및 정치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협력을 증진.
- 각국의 동북아 연구 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등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다자간 협정을 체결.
- 이때 앞에서 제시한 청년 의원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청년 의원의 정당성 및 관련성을 보장하고, 연구협력을 통해 학계 차원에서 청년학자와의 대면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기회로 삼음.

19

2. 청년 요구형 정책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청년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초당적 외교 및 정당 차원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 요청

2) 정당 차원의 통제 장치 마련

- 국회의원, 정당원 대상 외교적 관례, 언어 학습에 관한 전문적 교육을 제공.
- 외교 정쟁화 지양을 위한 내부통제 메커니즘 개발.

3) 외교의 정쟁화로의 해석을 이끄는 보도 지양

- 정정보도 및 사실해명 절차 의무화, 자료 출처 표기를 비롯해 부재한 국제기사와 관련 언론 보도준칙 및 실천요강 수립.
- 부적절한 외교적 발언 자체 필터링 시스템 구축.

20

4.

결론

최종결론

1.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지향적 관계정립 필요
2.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외교적 경쟁화 공세와 언론 보도를 지양
3. 기성세대와 다른 청년세대의 대중, 대일 인식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과감한 정책 제시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



〈좌장〉

백범흠

- 2021~ 現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
- 2016.04~2018.11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총영사
- 2014~ 중국청년정치학원 정치학과 객원교수
- 2013.12~2016.04 주다렌영사출장소 소장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1



김민서

• 한중일 대학생 연합단체 OVAL KOREA 부회장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2



신유리

- 現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 위원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3



이세훈

•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취재국 기자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4



이승원

• 現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

토론5



이육연

- 現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 2022.0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
- 2020.01 현대중국학회 회장
- 2019.0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 2019.1 중국어문연구회 회장
- 베이징사범대학교 고급 진수과정 수료
- 前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방문교수



제1회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토론6



이윤식

• 現 여의도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토론7



정미애

- 現 세종연구소 특임연구위원
- 2017.12.~2021.1. 주니가타한국총영사
- 前 국민대 연구교수, 일본 고베대 객원교수
- 前 템플대 재팬캠퍼스 객원연구위원
- 前 주일한국대사관 선임연구원

청년이 만드는 미래, 청년이 만드는 대한민국

국회미래연구원 청년미래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연구 과정에 청년세대의 입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를 청년의 관점에서 재해석, 이러한 연구를 청년에게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운영된 미래크리에이터 사업이 확장,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년과 국가, 청년과 정책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청년미래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연구원이 주관하는 다양한 국가의 미래에 관한 행사와 토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해당 행사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행사의 참관을 넘어 직접 행사를 주관, 국가와 청년들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청년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미래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와 미래 동향, 현재의 청년 정책 등을 청년의 시각에서 재분석하고, 이를 청년에게 홍보, 설파하는 역할을 하는 등 청년과 정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청년미래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미래 동향과 정책, 그 속의 문제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논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청년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저희 청년미래위원회는 해외 청년들과의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국내 정책뿐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미래 동향과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청년과 공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년미래위원회는 “국가와 청년 간의 협력은 미래를 개척하고 국가를 강화하는 핵심이다” 라는 말처럼 국가와 청년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대화와 숙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청년미래포럼



한·중·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